

기업하기 좋은 전북도 발판 마련

14개 시군 협업회의, 애로해소·지원서비스 강화·규제 개선 추진

전북도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기업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기업과의 소통 및 접근성 강화, 마케팅·인력지원 내실화 및 선진적 노동문화 조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각 산업별, 기관별로 금융, R&D, 인력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기관별로 지원업무를 개별 관리하고 기업 애로를 지원하고 있

는 상태다. 이로 인해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정보취득이 어렵고 원스톱 기업지원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자금, 판로, 기술, 인력 등 맞춤형 기업애로 원스톱 해결을 위해 기업애로해소 전담창구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현장기동반을 운영한다. 또한 기업지원기관 협업과제와 법령·제도 등 기업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수행하고 기업지원기관 협업회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처리상황과 성과를 점검·관

리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지원 상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기업애로 처리를 위해 2018년 하반기에는 기업지원사업 전화상담, call-back 서비스, 전문 컨설턴트 현장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통합콜센터'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기업과의 소통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정보교류 등 소통창구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중소기업 대표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고, CEO 대상 시군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서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1,700억원)과 복지편익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135개사, 33억원), 성장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을 한다. 도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애로를 항상 귀담아 듣고, 기업친화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차단하고, 더불어 외부기업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어 전북 경제 성장 발전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박재만 의원 '위대한 한국인 100인' 영예

지역발전 공로대상 수상자 선정



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제10대 도 의원으로서 전라북도 자율관리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등 다수의 조례안을 제·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큰 상을 받게 돼 감사할 따름이다"고 소감을 밝히며 남은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도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재만(군산·사진)의원이 제17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회의, 국민행복시대가 주관하고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본 행사는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기여한 분들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해 시상식을 하고 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시상식은 지난 23일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으며, 이날 박재만 원내대표는 지역발전 공로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원내대표는 농업 육성 및 지역산

"신뢰받는 도정 구현 최선 다할 것"

전북도, 중앙부처 전 분야 평가서 우수한 성과 두각

전북도는 2017년 중앙부처 등에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평가를 분석한 결과 모두 24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26일 도에 따르면 분야별로는 행정분야 7건, 경제분야 7건, 복지 환경분야 5건, 재정분야 3건, 안전분야 2건이다. 또한, 재정 인센티브 47억원 확보와 더불어 대통령 표창 5건, 국무총리 표창 1건, 장관표창 13건을 수상했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공직 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음으로써 청렴 도정을 인정받는 등 17개 평가에서 전국 으뜸가는 최우수의 성과를 보였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지방투자촉진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평가는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하반기 재정 집행실적 평가는 3년 연속 최우수의 성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방 소비자시책평가는 6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이러한 일련의 성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준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의 결실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더 내실있고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 현황 청취 이형규 새만금위원장 민간위원장이 26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각실국에서 새만금 관련 현황을 청취하고 도지사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다.

농식품기업 HACCP 인증 유지 어려움 해결

전북도, 내달 19일까지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희망자 공개모집

전북도는 '2018년 농식품기업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를 2018년 1월 19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식약처의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정책에 따른 도내 농식품기업의 HACCP 인증 유지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시행하는 2018년 신규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식약처의 HACCP 인증을 받아 운영 중인 도내 식품기업으로 1년 이상의 운영실적,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이상 사용이다.

지원 내용은 HACCP 인증 후 사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관련 위생장비 구입비용 등 업체당 400만원(지부담 30%)지원, 지원 업체수는 50개 정도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장·군수에 사업을 신청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 농식품기업 지원업무 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해당 시군 업무담당자의 서류 및 현장 심사 후 농식품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1월 중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산 농산물을 주로 사용하는 농식품기업의 HACCP 사후관리 지원으로 안심먹거리 지속 생산 및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제값받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전주장학숙 가온누리봉사단 영아원서 봉사활동

전라북도전주장학숙 입학생, 졸업생, 직원들로 구성된 가온누리봉사단에서는 26일 전주영아원을 방문,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주영아원은 아동양육전문기관으로서 기아, 미혼부·모아동, 빈곤아동, 방임, 학대아동, 다문화가족아동 등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시설을 방문한 봉사단들은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놀아주면서 정서적 안정감과 즐거움을 주었고, 실내·외 청소도 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30만원 상당의 화장지, 세제 등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한 주재씩(예수

병원 재직) 졸업생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따뜻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고 감사함과 행복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설 관계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방문해주신 전주장학숙 봉사단들이 진심을 담아 아이들에게 다가서자 아이들도 무척이나 좋아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전주장학숙 한상인 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 해 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아이들 행복해지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